

No.2015010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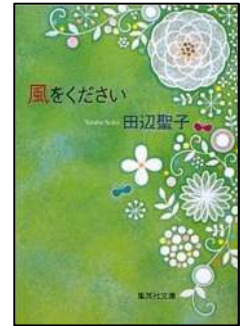
제목: 바람을 주세요

저자: 타나베 세이코

페이지수: 394

장르: 소설

출간일: 2011년 3월 18일



<내용소개>

사랑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연애소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로 앙숙인 두 가문의 자녀들의 연애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야기인 춘향전 같은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느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애소설이란 것은 그 과정과 결말이 뻔히 보이는 전형적인 스토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애소설을 읽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사랑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서는 좀처럼 마주할 일이 없는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싶어하는 보상심리가 적용한 것은 아닐까?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외에 많은 소설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여류작가 타나베 세이코의 ‘바람을 주세요’는 서른을 넘긴 커리어 우먼 스미레의 연애를 그린 작품이다. 잘 나가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스미레는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할 만큼 냉랭하고 독 부러진 성격인 서른 중반의 여성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애와 거리가 먼 그녀도 결혼보단 연애에 무게를 두고 일 년이 넘게 만나고 있는 연하의 애인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소개받아서 알고 지냈던 중년신사에게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스미레는 능력도 있고 매너도 좋은 사람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겼지만 연하의 남자친구의 생각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놓자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두 사람을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다리가 불편한 소녀 조제와 평범한 대학생의 귀엽고도 애달픈 연애담을 그린 ‘조제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외에 수 많은 연애소설을 써온 저자의 이번 작품에서는 그 동안 보여줬던 사랑에 빠진 남녀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군데군데 적절히 섞여있는 유머가 눈에 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법한 사랑의 모습을 읽다 보면 가끔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가 만들어 낸 사뭇 진지하면서도 가끔은 웃을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예구니 카오리를 비롯한 일본 후배 여류작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타나베 세이코의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연애에 대한 색다른 느낌과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 제1장: 당신의 기한은
- 제2장: 스지코처럼 되다
- 제3장: 새해에는 어떻게 할까요?
- 제4장: 반쪽자리 행복
- 제5장: 쿠테의 사상
- 제6장: 장마 때의 너구리
- 제7장: 여자와 잔잔한 바다
- 제8장: 바다를 훌쩍리다

<저자소개>

타나베 세이코

1928 년 일본 오사카 출생. 오사카 쇼인여자대학에서 국문과를 졸업했다. 1956 년 소설 '무지개'로 제 50 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등이 있다.

No.20150107-002

제목: 3시의 앳코씨

저자: 유즈키 아사코

페이지수: 168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10월 15일



<내용소개>

직장인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앳코씨의 상냥한 마음이 담긴 단편집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미생'이 최근 큰 인기를 얻었다. 누구나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상사와의 충돌과 동료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안정적인 정사원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그 인기의 비결일 것이다.

어느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치코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 때문에 피곤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쉬는 날에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헌책방에서 일을 봐주는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아이디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커피나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한 그녀는 언제나 한숨만 쉴 뿐이었다. 그런 그녀를 몇 달 전부터 봐왔던 앳코씨는 미치코에게 영국에서 알게 된 티 타임 문화를 알려주기 시작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회의를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바로 오후 3시에 갖는 티 타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오후 3시에는 여유롭게 차 한잔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던 영국사람들은 티 타임 이후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앳코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치코가 회의시간에 커피를 준비하는 것은 상사와 동료들에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치코는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앳코씨의 말을 처음에는 그저 한 귀로 흘려듣는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회의준비에 더욱 꼼꼼히 신경 쓰고 평소보다 공을 들여 티 타임을 준비한 그녀는 주위로부터 센스 있는 직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반신반의한 이야기로 시작한 그녀의 작은 변화가 자신의 고민을 깔끔히 날려주게 할 출발점이 된 것이다.

프로 바둑기사의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선택한 '미생'의 주인공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꿈도 희망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

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지친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멘토인 앓코씨와 함께하는 이 소설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미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목차소개>

- 제1화: 3시의 앓코씨
- 제2화: 지하철의 앓코씨
- 제3화: 슈슈와 원숭이
- 제4화: 우메다역 언더 월드

<저자소개>

유즈키 아사코

1981년 일본 도쿄 출생. 릿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2008년 'Forget me, Not blue'로 제 88회 올 독자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여러 작품을 내놓으며 나오키상 후보에 오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12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런치의 앓코씨' 등이 있다.

No.20151007-003

제목: 죽는다면 치매보다는 암이 낫다

저자: 니이미 마사노리

페이지수: 220

장르: 건강

출간일: 2014년 11월 29일



<내용소개>

치매 그리고 암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해 보이는 노후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것이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계속되는 야근과 회식을 겪으면서도 잘 버틸 수 있었지만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50대 이후부터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몸에 근육이 줄어들면서 체격에 작아지고 면역체계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그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는 바로 암과 치매증상이다.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은 많은 수술 비용과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치매증상에 대해서는 암만큼 커다란 위기가 감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실제로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치매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고, 치매야말로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보다 주위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치매 증상을 직접 겪은 저자는 앞으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노년기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설명을 하기 앞서 저자는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담배를 피우거나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암에 걸리고도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완치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은 것이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모은 정보를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의 양이 중요하다는 정보와 동시에 남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치매는 본인보다 주위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병이다. 소중했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고통을 겪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치매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타이틀로, 황혼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목차소개>

- 제1장: 치매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80세 노인들의 사례로 배우다
(100세의 비결, 정갈한 식사 / 담배를 펴도 육식위주의 식습관인데도 건강한 사람 등)
- 제2장: 치매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병원 사용방법
(근처 동네 병원에 갈 것인가 대학병원에 갈 것인가 / 이런 의사는 같은 의사라도 싫다 등)
- 제3장: 치매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알아 뉘어야 할 것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믿지 마라 / 고혈압기준과 시장원리 등)
- 제4장: 현명한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의심해라
(실험결과와 인과관계를 의심해라 / 60세까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안 끊어도 된다 등)
- 제5장: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50세부터 해야 할 것
(암은 세포의 노화 / 마음가짐에 의해 병의 상태는 달라진다는 등)
- 제6장: 이왕 죽을 거면 치매보다는 암이 낫다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둘러싸고 / 어머니야말로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셨다 등)

<저자소개>

니이미 마사노리

1959 년 일본 교토 출생. 1985 년 게이오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식면역학을 배웠다. 전공인 혈관외과 외에 한의학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현재 테이쿄대학 부속병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서양의사가 권하는 한의학' 등이 있다.

No.20150107-004

제목: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심리 테크닉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

페이지수: 206

장르: 자기계발 / 처세

출간일: 2013년 2월 26일



<내용소개>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리학 전술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서적

옛날부터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국가의 왕이나 전쟁으로 영토를 넓힌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주로 군사력과 신분계층을 이용해 대중의 의견을 묵살했던 옛날과는 달리 시대가 바뀌면서 완벽한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스 정권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그런 방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었다. 대중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연설과 심리전의 대가인 괴벨스의 여론조작에 힘입어 히틀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상 유래 없는 일을 만들었다. 이후 세계의 정치가들은 히틀러가 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우리들은 항상 선거철 마다 찾아오는 정치인과 대중의 기묘한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상대방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대중 앞에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공약과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기 일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가의 모습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심리학자인 저자는 'Low ball technic'이라는 설득 기술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다. 상대방에게 잡기 쉬운 공을 던져서 잡게 한 후 상대방에게 점점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는 이 방법은 흔히 '결혼하면 담배를 끊을게'라는 명대사로 우리 주변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설득 기술이다. 여기에는 일단 마음 속에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심리가 숨어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걸 먼저 얻은 후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겁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방법들은 단지 정치가들에게만 한정되어있지 않다. 회사의 경영자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때나 상사가 자신의 부하직원을 가르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쓸 수 있고 이성을 설득시킬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

한 'Low ball technic' 같은 전술 외에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의 리더십과 상대방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유형까지 분석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이 책은 남에게 끌려 다니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대중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대중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 어떻게 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등)

제2장: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여성적인 사람 등)

제3장: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악마의 연설

(유명한 연설을 흉내 낸다 / 짧고 간결한 연설을 항상 염려해둔다 등)

제4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연출방법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동해라 /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라 등)

제5장: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방법

(진절머리가 날수록 같은 말을 반복한다 / 되받아 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등)

제6장: 생각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이미지 전략

(넓은 인맥을 어필한다 /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다 등)

<저자소개>

나이토 요시히토

게이오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한 후 비즈니스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심리전술' 등이 있다.

No.20150107-005

제목: 간식 없는 인생 따위!

저자: 이토 마사코

페이지수: 189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4년 12월 4일



<내용소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간식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식사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 그저 물만 마시거나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보내기에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탄생한 간식은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은 식사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간식을 찾는 이유는 입안을 가득 채우는 달콤한 맛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먹었던 과자의 달콤한 맛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면 누구나 이 말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어릴 적 간식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간식을 찾는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곳곳을 누비며 먹은 간식 중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을 계절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껏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간식사진과 거리의 풍경들 그리고 간식을 먹는 저자의 글까지 읽고 있으면 어느 샌가 입가에 군침이 도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런던과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맛 본 간식의 세계도 소개하고 있다. 오랜 전통의 디저트 카페에서 맛본 케이크에서 시작해 런던 거리에서 만난 솜사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읽는 사람의 침샘을 자극하는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무조건 비싸고 유명한 간식을 쫓아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맘에 드는 가게에 들어가 맛 보는 행복한 시간을 잘 표현한 저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 간식을 즐기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다.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에서 퍼지는 행복한 기분을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여기에 덧붙여 간식 없는 세상은 너무나 쓸쓸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간식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잘 표현한 이 에세이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잠시 달콤한 상상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

분할 것이다.

< 본문이미지 >



絵本の箱にはフィナンシェがたくさん。バターの良い香り。



東京・京橋町の近江屋洋菓子店のバームクーヘンは、手土産にぴったりのサイズ。豪華な包装がもとても可愛。



24



レモンの風味がしっかりと効いたケーキ。濃いめのダージリンと一緒にいただきます。



宮崎のロケットのお話。あり合わせのおやつをここに詰めて。



自分へそして友人へ。新宿・伊勢丹に行くとき必ず買うのは、ドイツの老舗、のレンディンシェ。のわきまストッカーのバームクーヘン。



友人の「華やかなお菓子」というリクエストで用意した手土産は、京都、ミディ・アパレル・ディオのマルト。

25

いざ、赤福本店へ！



26

もち一つとした食感と舌触りもなめらかなこしあんの妙。その佇まいを思い出すだけで、胸がキュンとしめつけられるお菓子・赤福餅。関西を訪れた時など、新幹線の駅の売店などで見かけると思わずにはいられない……そんなに好きなお菓子なのに、誕生の地・伊勢の赤福本店を訪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でもいつかは……と思っていた矢先、仕事帰りに伊勢神宮に寄ってみようか？ということに。

伊勢神宮の参拝を終え、身も心も清々しさがいっぱいになったところで、いざ、赤福本店へ！

ここで知ったのですが、赤福の屋号は「赤心慶福」という言葉から来ているのだそう。赤心慶福とは「赤子のような、いつわりのないまごころを持って自分や他人の幸せを喜ぶ」という、神宮参拝者の心のありようを表しているのだとか。

あんにつけられた3本の筋は、伊勢神宮神域を流れる五十鈴川のせせらぎを、お餅は、その川底の白い小石がモチーフになっているそう。なるほど、知ると知らないのとでは、ずいぶん食べる時の気持ちの持ちようが違ってくるものです。

店頭の竈で沸かしたお湯で淹れられたお番茶と一緒にいただく赤福餅のおいしさは言わずもがなで、なるほど門前に旨いものありとはよく言ったものだなあ……としみじみ、の初・赤福本店なのでした。

27

< 저자소개 >

이토 마사코

1970 년 일본 요코하마현 출생. 문화복장학원에서 디자인과 재봉을 배웠다. 현재 요리와 주변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는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어른의 화려한 교토 산책' 등이 있다.

No.20150107-006

제목: 내용 전달이 잘 되는 문장을 쓰는 방법

저자: 인나미 아츠시

페이지수: 19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4년 11월 29일



<내용소개>

막힘 없이 술술 읽히는 문장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테크닉을 모아놓은 교과서

평소에 알고 싶던 정보를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도중 발견한 어느 블로거의 글을 읽던 A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많은 수식어가 들어간 블로거의 글은 그저 본인이 쓰고 싶은 표현만 가득했을 뿐 정작 A씨가 원하는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몇 번을 읽어봐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친 A씨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얼굴도 모르는 블로거에게 마음 속으로 살짝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다름아닌 문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기원 전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종류는 모습을 바꿨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문자와 문장이다.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글쓰기는 예로부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글을 쓰는 것 보다는 읽는 것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쓰기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저자는 능숙한 글쓰기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약 250개가 넘는 서평을 작성하고 있는 저자는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선 먼저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어휘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능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문장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가장 좋을지 정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어서 글쓰기는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인데 그런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강하기 위해선 숙련된 글쓰기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에 본래 목적이 있다. 독자들에게 보다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조언과 읽고 나서 따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도와주는 이 타이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 한다.

<목차소개>

제1장: 프로 서평가가 알려주는 독서법과 시간 활용법

(서론과 목차로 판단해라 / 효율적인 속독 기술 등)

제2장: 독자의 시점에 서라

(타겟을 확인하고 이미지를 구축 / 독자와 시간과의 관계 등)

제3장: 중요 포인트는 전달하려고 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전달하는 것 / 문장을 가다듬는 테크닉 등)

제4장: 술술 읽히는 문장을 쓰는 방법

(평소에 읽는 습관을 들여놔라 /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따라 써본다 등)

<저자소개>

인나미 아츠시

1962 년 일본 도쿄 출생. 광고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수필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작가와 광고 카피라이터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 장의 블랙 뮤직' 등이 있다.

No.20151007-007

제목: 無印良品(MUJI)의 인재육성법

저자: 마쓰이 타다미츠

페이지수: 221

장르: 경제, 경영

출간일: 2014년 7월 11일



<내용소개>

無印良品(MUJI) 회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재육성법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지닌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無印良品(MUJI)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10년이 지났다. 일본 현지를 비롯한 전 세계 매장에서 눈에 띄는 광고도 하지 않고 그저 물건을 사용한 사람들의 소문으로 성장해온 無印良品(MUJI)는 한국에서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석식품에서 시작해 조미료 문방구 그리고 식기, 가구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無印良品(MUJI)는 심지어 집까지 판매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브랜드 중에 하나다. 하지만 한 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브랜드가 사라질 위기를 넘어서 2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 다른 곳에서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5%라는 아주 낮은 이직률을 자랑하는 회사를 만들어낸 이 책의 저자는 그 원인을 바로 無印良品(MUJI)만의 인재육성법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그 육성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틈새 없는 유연한 회사 내 인사이동, 신입사원을 역전의 용사로 만드는 시스템, 자신 스스로 일을 매듭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과 팀 워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방법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틈새 없는 유연한 회사 내 인사이동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이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無印良品(MUJI)에서는 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자유로이 인사이동을 시켜주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분야로 가는 것도 말리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저자는 이런 특이한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다른 일을 하면서 배우는 기술은 그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는 계기가 되며 한 가지 일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또한 인맥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다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함께 따라온다고 한다.

사람은 역경을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위와 같은 인재육성법을 회사에 반영한 결과 일할 맛이 아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사원을 자원

으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시련을 던져주고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경을 헤치고 나온 사람에게 종신고용과 실력주의의 회사생활을 제공해줘서 안심하고 일에 집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無印良品(MUJ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無印良品(MUJI)만의 인재육성법은 제한된 인원으로 높은 효율을 얻고 싶은 많은 경영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無印良品(MUJI)은 왜 이렇게 낮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가

(사람이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 일부러 역경을 만들어내는 이유 등)

제1장: 틈새 없는 유연한 인사이동으로 사람은 자라난다

(‘이것’으로 인재육성의 80%는 결정된다 / 틈새 없는 유연한 인사이동이 사람을 키우는 5가지 이유 등)

제2장: 신입사원을 꺾이지 않는 사원으로 기르는 시스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몸으로 이해시킨다 / 리더십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등)

제3장: 자신 스스로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

(자신의 장단점을 해외에서 확인한다 / 문제를 눈 앞에 두고 절대로 도망가지 말 것 등)

<저자소개>

마쓰이 타다미츠

1949 년 일본 시즈오카현 출생. 1973 년 도쿄대학 졸업 후 세이유에 입사한 후 1992 년에 無印良品(MUJI)에 입사했다. 총부인사부장, 사업부장을 거쳐 2001 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적자상태였던 기업을 송두리째 개혁해서 2007 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無印良品(MUJI)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無印良品(MUJI)는 90%가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등이 있다.

No.20150107-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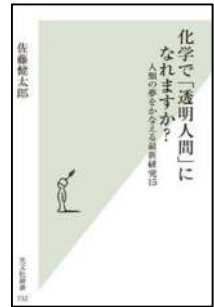
제목: 화학기술로 투명인간이 될 수 있나요? - 인류의 꿈을 향한 15가지의 최신 연구

저자: 사토 켄타로

페이지수: 284

장르: 과학

출간일: 2014년 12월 11일



<내용소개>

항암치료, 석유와 금 그리고 우주여행까지 우리가 몰랐던 화학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이야기

과학에서 문명의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야에 대해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물리학을 말할 것이다. 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리학은 그 특유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철학을 비롯한 수 많은 이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건들은 전부 화학이론을 기초로 한 제품들이다. 물질의 성질 및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 화학은 물리학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한 학문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는 학문이기도 하다.

과거 서양에서는 화학반응으로 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연금술사들이 있었다. 물론 금을 연성하는 초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연금술은 점차 다듬어져서 현대 화학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만약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석유나 각종 광물자원에서 필요한 요소만 분리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현대의 화학기술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지금의 기술로도 금을 효율적으로 연성하는 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대안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금을 정제하는 방법인데 과거 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1톤의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고작 0.01그램이라는 극도로 나쁜 효율 때문에 중단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표면에서 금박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소를 찾는 노력도 계속되었지만 투자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을 만들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만한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이 책은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15가지의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어려운 화학지식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박사와 그의 아내가 궁금한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아내의 톡톡 튀는 질문에 차분히 답해주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재미와 동시에 화학지식도 머리 속에 쑥 들어올 것이다. 책의 제목인 투명인간에 대해

서도 궁금하다면 주저 말고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목차소개>

- 제1화: 금을 잔뜩 만들 수 있나요?
- 제2화: 불로불사의 몸이 될 수 있나요?
- 제3화: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 제4화: 이성을 끌어 모으는 약을 만들 수 있나요?
- 제5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나요?
- 제6화: 먹으면 살이 빠지는 약을 만들어 주세요!
- 제7화: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치할 수 있을까요?
- 제8화: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필요해요!
- 제9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마술 주머니가 필요해요!
- 제10화: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 제11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 제12화: 단번에 감기가 낫는 약이 필요해요!
- 제13화: 암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어요!
- 제14화: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나요?
- 제15화: 에너지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저자소개>

사토 켄타로

1970 년 일본 효고현 출생.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에서 이공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의약품 메이커 연구직과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연구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과학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유기화학 미술관에 어서 오세요' 등이 있다.

No.20150107-009

제목: 눈꽃

저자: 타치모토 미치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8년 10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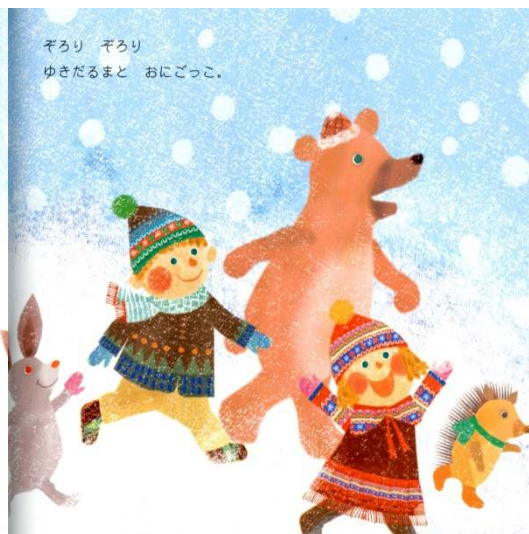
<내용소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잘 표현한 이야기

일 년 사계절 중에 오직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은 아이들에게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신기한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친구들과 같이 마을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눈사람을 만드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으로 그려낸 이 동화책은 눈에 살고 있는 요정과 동물친구들과의 한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은 어느 새 나무에 눈으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아이들과 동물친구들은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의 요정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타치모토 미치코

오사카 예술대학 문예학과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선물은 뭐야?' 등이 있다.

No.20150107-010

제목: 마술 환영회

저자: 미야카와 히로 (글) / 후지다 히오코 (그림)

페이지수: 78

장르: 아동 동화

출간일: 2001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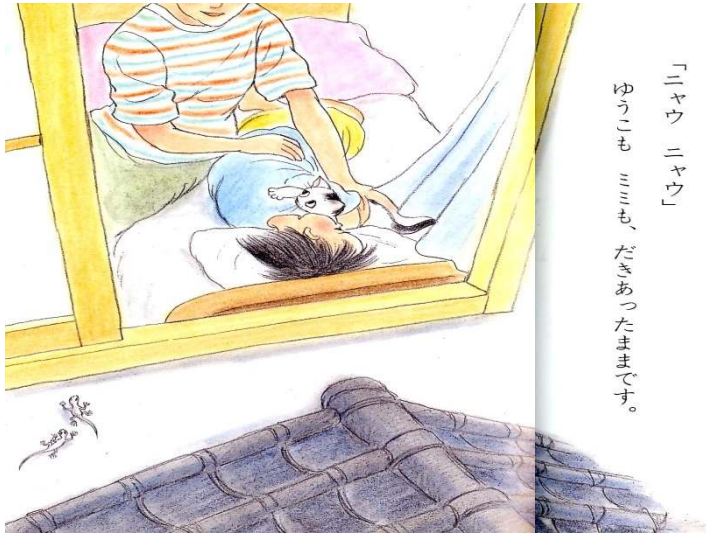
<내용소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이야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애완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집을 지키는 역할로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완동물은 단지 집에서 기르는 동물 이상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작고 귀여운 모습을 지닌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몰래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친구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애완동물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함께 지내던 고양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와 떨어져야 하는 소녀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하는 동시에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 속에서 성장해가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른 채 한 층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유코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고양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울먹이면서 근처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맡기지만 유코의 발걸음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고양어도 유코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는지 헤어진 다음 날부터 밥도 잘 먹지 않고 할머니와 유코가 전화로 이야기 하고 있으면 항상 수화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제 버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유코는 이 맛을 고양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유코가 맛 본 수제버터를 똑같이 맛 보여 주고 싶던 유코의 마음이 고양이에게도 통했는지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지낼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같이 있는 유코와 고양이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냅니다.

<본문이미지>



「ゆうこたちが いっ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
ひとりになってしまおうでしょう。ミミだけは、
おばあちゃんのところ、のこしていこうよ。
ね、ね」
おかあさんが、なだめています。
「いや、ミミも つれていく」
「ニャウ ニャウ」
ゆうこも ミミも、だきあつたままです。

20



ゆうこは すぐ、じゅわきを とりました。
「もしもし、おばあちゃん、あのね、きょう、
えりこ先生がね、『ゆうこかんげい』の
てじなを してくれたの。生クリームが
バターになるのよ。おいしいの、
つくってみてね、ミミにも なめさせてやってね」
ゆうこの いきは はずんで、はやくちの
でんわになりました。

66

<저자소개>

소마 코헤이 (글)

1945 년 일본 오카야마현 출생. 게이오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 '동물가족' 등이 있다.

마루야마 아야코 (그림)

1982 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 타마미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 '이상한 나라의 발레리나' 등이 있다.